국내 주식 투자전략

이주호 02) 768- 7991, imissk2000@nhw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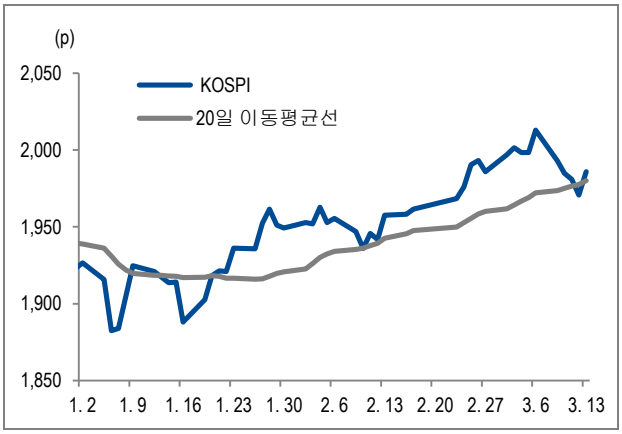
한국 시장을 다시 사는 외국인

KOSPI,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하방경직성 강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당국의 경기부양 의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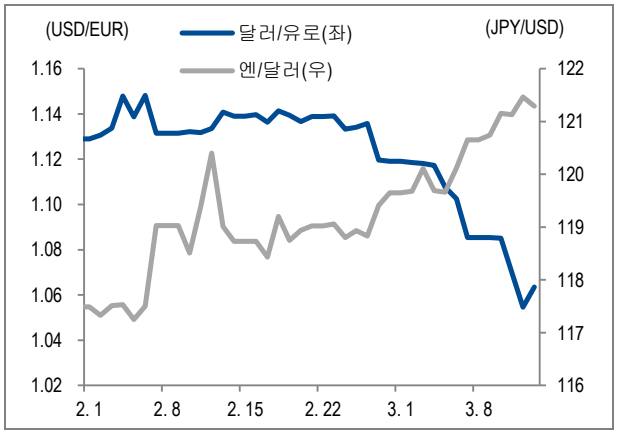
미국 기준금리 조기인상 우려와 동시만기 여파로 한때 1,970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던 KOSPI가 한국은행 금통위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기존 2.00%에서 1.75%로 0.25%p 인하)에 힘입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력을 발휘하며 상승전환에 성공하였다. 이번 한국은행의 조치는 국제유가발 글로벌 디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우려와 수출 및 내수 부진 지속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 하방경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OSPI, 20 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력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달러화, 급등 후 숨고르기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기준금리 인하 효과, 주가 상승세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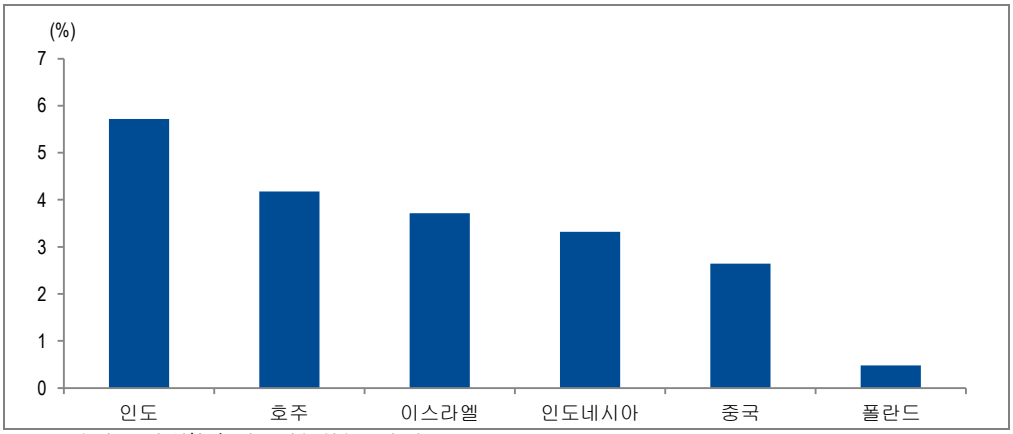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주가 상승세

이번주 17~18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FOMC회의를 앞두고 일부 관망심리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상승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매매전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 들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주요 신흥국 증시를 살펴보면, 인도(기준금리 인하 후 증시 고점 기준, +5.72%), 호주(+4.25%), 이스라엘(+3.71%), 인도네시아(3.32%) 등 기준금리 인하 이후 20거래일 내에 3~5%의 지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증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3월 양적완화를 시행한 유로존을 비롯해 유동성 확대조치를 단행한 중국, 일본 증시가 연중 최고 수준에 올라서는 등 풍부한 유동성과 정책모멘텀에 힘입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 역시 정책모멘텀 강화 과정에서 상승시도를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기준금리 인하 주요 신흥국의 주가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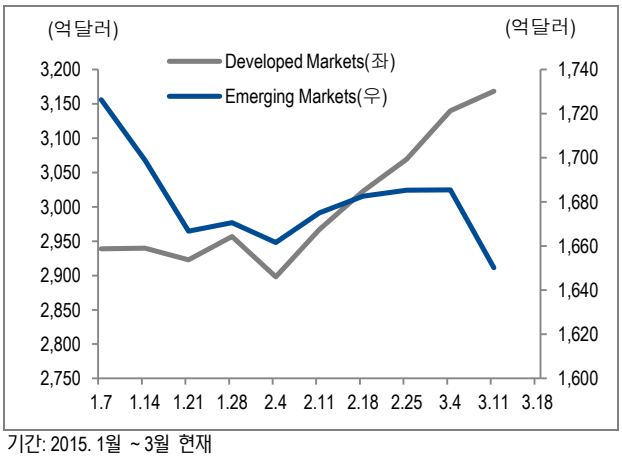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금리 인하 후 각국 지수 상승 고점 기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이머징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 차별화

ECB 양적완화 기대감, 외국인 매수세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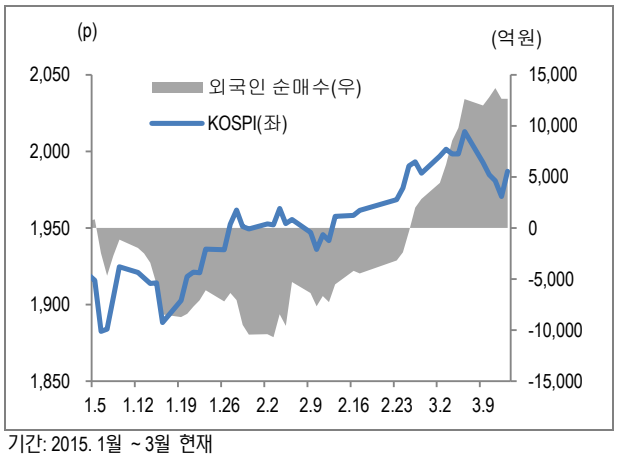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유로존과 일본의 양적완화 시행 등으로 선진국 증시가 연중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선진국 증시로의 글로벌 자금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머징 증시에서는 3월 들어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는 등 차별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신흥국 내에서도 외국인의 선호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면서 대만, 호주와 비롯해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2월 초를 기점으로 외국인 순매수세로 전환되면서 3월에는 연간 누적기준으로도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였다. ECB의 양적완화 시행 결정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준금리 효과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화학, 전기전자, 운수창고, 운수장비 등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매수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이후 업종별 수익률이 하드웨어, 제약바이오, 자동차부품, 화학 순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 선호 업종의 수익률이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추이



기간: 2015. 1월 ~3월 현재
자료: EPFR,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외국인 순매수 기조 유지



기간: 2015. 1월 ~3월 현재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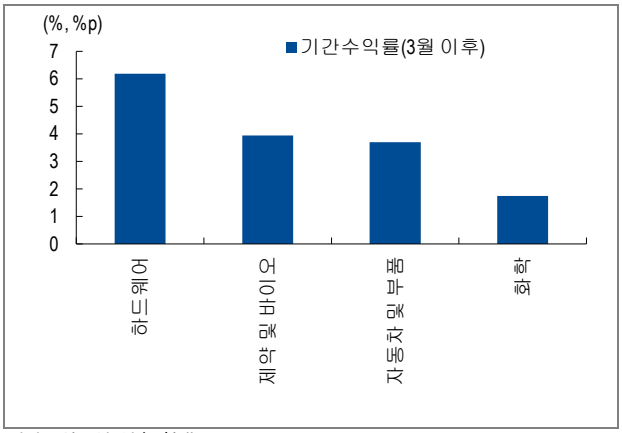
외국인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한 관심 필요

외국인 선호업종 화학/전기전자/운송

ECB의 QE 프로그램을 계기로 유로존의 경기지표가 일부 개선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고려할 때 외국인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외국인 매수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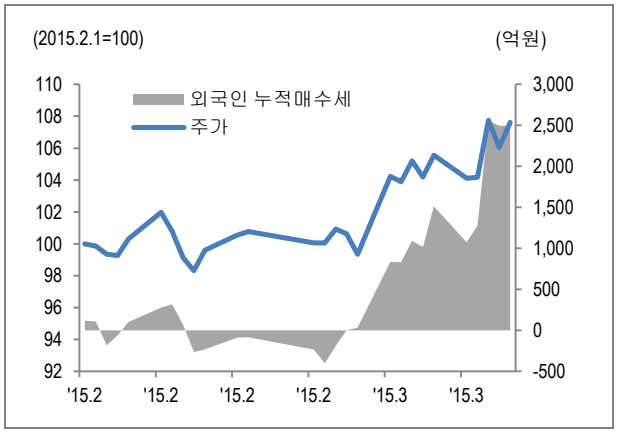
이러한 분위기 속에 화학업종의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석유화학 제품가격 상승, 유가 하락에 따른 기초원재료 가격 하락 등 석유화학 업황 개선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기전자의 경우는 양호한 글로벌 소비지출과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전방산업의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 매수의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기의 확장이 반도체 부문의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고, 갤럭시 S6 효과가 커지면서 실적모멘텀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IT부문의 호조세는 운송업종 내 항공 및 육상운송 업종의 외형성장세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이들 외국인 선호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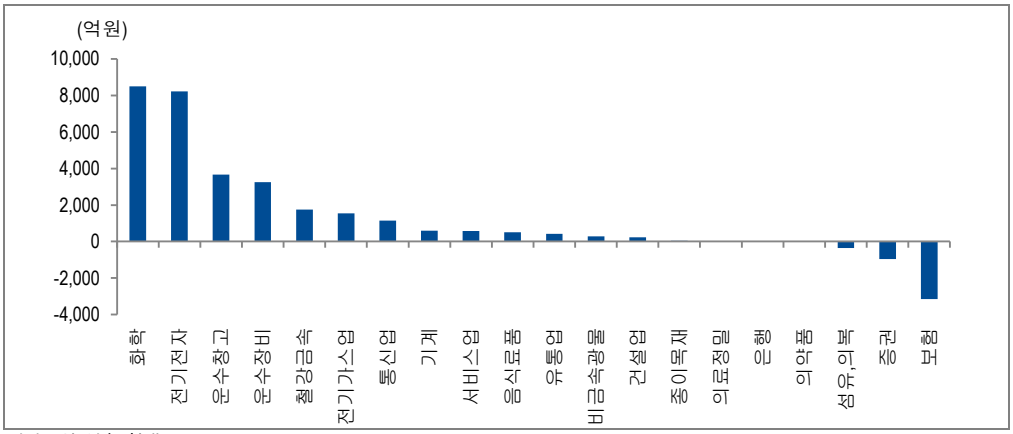
기간: 3월 1일 이후 현재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세 지속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2 월 이후 업종별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기간: 2월 이후 현재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